■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37-447.
http://doi.org/10.17948/kcs.2022..95.437

『송하첩(松下帖)』 해제

유지복(柳志福)*

1. 서지사항

- 표제: 松下帖
- 저자: 조윤형(曺允亨, 1725-1799)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정조 연간
- 형태사항: 折帖裝(38張) : 34.7×22.5㎝
- 주기사항: 書名: 松下帖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XI-4-B-58

2.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서화(書畵)에 능했던 송하(松下)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의 필적을 모아놓은 서첩(書帖)이다.

* 전주대 연구교수.

3. 편저자 사항

조윤형의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자는 치행(穉行), 호는 송하(松下) 또는 송하옹(松下翁)이다. 부친은 개성부 유수를 지낸 조명교(曺命敎, 1687-1753), 모친은 파평 윤씨로 돈녕부 도정을 지낸 윤춘교(尹春敎)의 딸로, 둘 사이에 4남 5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났다. 문음(門蔭)과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42세인 1766년(영조 42) 선공감 주부로 처음 벼슬길에 나간 뒤, 금오랑, 상의원 첨정, 선공감 부정 등을 거쳤다. 그 뒤 외직으로 보은 , 금천 , 임피 , 청도 , 가평 , 성주 등의 수령을 역임하였고, 호조 참의 , 돈녕부사 , 공조 참판 ,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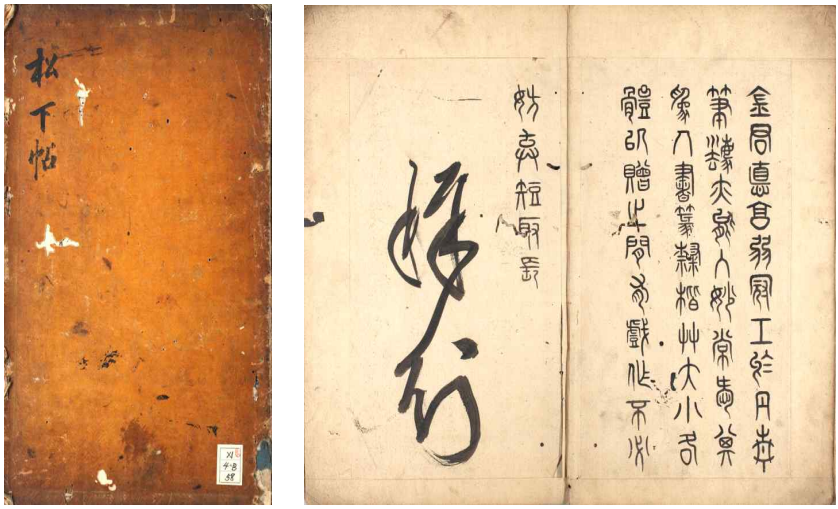
조윤형은 그림과 글씨에 능하였다. 그의 부친 조명교는 글씨에 뛰어나 많은 비문을 남겼다. 왕희지(王羲之) 풍의 전형적인 해서(楷書)로부터 당(唐) 안진경(顔眞卿)과 한호(韓濩) 풍의 해서, 당(唐) 이양빙(李陽氷) 풍의 전서(篆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서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상당한 필력의 소유자였다. 조윤형의 5대조인 조문수(曺文秀)는 송설체(松雪體)의 대가로 우리나라 역대 명필의 필적을 모각하여 만든 『대동서법(大東書法)』에 필적이 실려 있고, 조문수의 아들로 조윤형의 고조부되는 조한영(曺漢英)은 그의 사위가 17세기 후반에 전서와 예서에 두각을 나타낸 김수증(金壽增)이었다. 조윤형이 서예적 재능을 갖출 수 있던 것은 이렇듯 선대로부터 명필을 배출해온 가계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조윤형이 14세에 쓴 글씨를 보고 이광사(李匡師)가 그의 재주를 높게 평가한 것을 보면 그가 이른 시기에 이광사로부터 글씨를 배웠던 것으로 짐작된다.[1] 조윤형은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관심을 가져 난죽고목(蘭竹枯木)과 괴석(怪石) 등의 묵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조윤형은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들어선 뒤 왕의 어제(御製)를 쓰거나 서사관(書寫官)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적 행보보다는 서역을 치르는 일을 주로 하였다. 1781년(정조 5) 정조의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할 때 그림을 잘 아는 신하를 입참시키는 예에 따라 호조판

1) 김지나, 「朝鮮後期 松下 曺允亨의 書藝 硏究」, 대전대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5면.

서로 있던 강세황(姜世晃)과 함께 입참하는 한편,[2] 10년 뒤 호조참의로 있을 때 어진을 모사한 정본에 표제(標題)를 쓰는 일에 소본(小本)의 서사관으로 참여하는 등 일찌감치 정조로부터 서예의 재능을 인정받았다.[3] 이후 창덕궁의 「서향각(書香閣)」 현판, 성정각(誠正閣)의 「경계십잠도(儆戒十箴圖)」 등의 서화 필적을 남겼으며, 현존하는 대표적 석비로 「대원당대선사비(大圓堂大禪師碑)」(1792년, 속초), 「만안교비(萬安橋碑)」(1795년, 안양), 「이창운묘갈전액(李昌運墓碣篆額)」(1798년, 화성) 등 다수의 필적이 남아있다.

4. 구성 및 내용



〈그림 1〉『송하첩』 표지(좌)와 마지막 면(우)

서첩의 표지에 "송하첩(松下帖)"이라고 쓴 행서 표제가 있다(그림 1 좌). 총 37장 74면으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각 서체로 씌어있다. 서체 또

2) 『承政院日記』 정조 5년(1781) 8월 27일 정유.
3)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10월 7일 무진.

한 대자·중자·소자·세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행서와 초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글씨의 내용은 45수의 시와 서법이론에 관한 명구 6구이다. 당시(唐詩)가 41수로 가장 많은 내용을 이룬다. 맨 끝에는 조윤형이 발문을 쓴 뒤 자신의 자 '치행(穉行)'을 대자 초서로 쓰며 끝을 맺었다(그림 1우). 이 서첩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면에 전서 소자로 쓴 글씨의 내용을 통해 이 서첩의 작성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 "김덕형(金德亨) 군은 약관의 나이에 그림에 솜씨가 있고 필법도 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내가 항상 그의 사람됨을 아껴 전·예·해·초서의 대자와 소자 각 서체로 써서 준다. 간혹 제멋에 겨워 쓴 글씨도 있으나 굳이 꺼릴 건 없고 단점은 버리고 장처만 취하시게. 치행."[4]

위 글을 통해 조윤형이 후배 서화가였던 김덕형의 글씨 학습을 위해 각 서체로 직접 써준 서첩임을 알 수 있다. 김덕형의 생몰년은 미상이다. 그의 관직생활과 관련해서는 규장각 초대 검서관(檢書官)이었던 유득공(柳得恭)과 이덕무(李德懋)의 기록이 참고 된다. 유득공은 검서관으로 있던 1783년(정조 7)에 각리(閣吏)로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김덕형을 불러 정조로부터 하사받은 단오선에 4종의 꽃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여백에 제화시를 썼다. 유득공의 말에 따르면 김덕형이 화훼(花卉)를 잘 그렸다고 한다.[5] 유득공의 막역한 동료였던 검서관 이덕무도 김덕형이 부채에 그린 그림을 보고 제시를 남겼다. 파란 연줄기 위에 앉은 물새와 마름 밑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린 김덕형의 그림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6] 이덕무는 또 김덕형이 그린 매죽도(梅竹圖)와 풍국도(風菊圖)에 화제시를 남겼는데, 조선 후기 문인화의 대가 심사정(沈師正)과 강세황(姜世晃)의 뒤를 이을 화가로 김덕형을 지목하여 김덕형이 그림에 뛰어난 솜씨를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려준다.[7]

한편 김덕형은 1784년에 승문원 소속 사자관 예차훈장(預差訓長)으로 차정

---

4) "金君德亨弱冠 工於丹靑 筆法亦能入妙 常愛其爲人 書篆隸楷草大小各體以贈之 間有戱作 不必妨 棄短取長. 穉行."
5) 柳得恭, 『古芸堂筆記』 권1, 「營實」.
6)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12 雅亭遺稿四, 「題閣吏金德亨畵扇」.
7) 李德懋, 같은 책, 「題閣吏金德亨梅竹楓菊二幅」.

(差定)되었고,[8] 이후 1788년(정조 12)까지 5년간 사자관 훈장을 지냈다.[9] 1790년에는 진안대군(鎭安大君)의 묘비를 세우는 일에 규장각 서리로 참여하여 상전을 받기도 하였다.[10] 이런 기록으로 볼 때 김덕형은 정조 연간에 활동했던 사자관 출신의 서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서첩에 실린 내용과 서체를 각 면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송하첩』 내용 및 서체

면수	내용	서체
1·2	"落花散漫"	초서 대자
3	唐 虞世南, 오언절구「初晴應教」	행서 중소자
4	唐 陳叔達, 오언절구「詠菊」	행서 중소자
5	唐 太宗皇帝, 오언절구「遼東山夜臨秋」	행서 중소자
6	唐 王勃, 오언절구「山扉夜坐」	행서 중소자
7	唐 王績, 오언절구「題酒店壁」	행서 중소자
8	唐 王績, 오언절구「獨酌」	행서 중소자
9	唐 王勃, 오언절구「春莊」	행서 중소자
10	唐 王勃, 오언절구「春園」	행서 중소자
11	唐 李崇嗣, 오언절구「獨愁」	행서 중소자
12	唐 陳子昂, 오언절구「贈別冀侍御崔司議」	행서 중소자
13	唐 張說, 오언절구「醉中作」	행서 중소자
14	唐 唐怡, 오언절구「述懷」	행서 중소자
15	唐 裴迪, 오언절구「華子岡」	행서 중소자
16	唐 裴迪, 오언절구「竹里館」	행서 중소자
17	唐 王績, 오언절구「醉後」	초서 중소자
18	唐 陳叔達, 오언절구「春首」	초서 중자
19	唐 宋之問, 오언절구「題鑑上人房」	초서 소자
20	唐 張說, 오언절구「淸夜酌」	초서 소자
21·22	唐 杜甫, 오언절구「絕句」	행서 중자
23·24	唐 高適, 오언절구「閒居」	행서 중자
25·26	唐 杜甫, 오언절구「絕句」	행서 중자
27·28	唐 裴迪, 오언절구「竹里館」	행서 중자
29·30	唐 王維, 오언절구「山中寄諸弟妹」	초서 중자
31·32	唐 裴迪, 오언절구「送崔九」	초서 중자
33·34	唐 岑參, 오언절구「題雲際南峯眼上人讀經堂」	초서 중자
35·36	唐 裴迪, 오언절구「漆園」	초서 중자
37·38	"隨意運奇"	해서 대자
39·40	唐 皎然, 오언절구「寓言」	예서 중자
41·42	唐 成彦雄, 오언절구「村行」	예서 중자
43·44	明 陳繼儒,「岩栖幽事」句 "欲藏萬卷異書 終身嘯詠其中"	전서 대자

8)『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8월 4일 정해.
9)『승정원일기』 정조 12년(1788) 8월 10일 기해.
10)『日省錄』 정조 14년(1790) 1월 6일 정해.

면수	내용	서체
45·46	“懸鍼垂露”	전서 대자
47-50	魏晉 嵇康, 사언시「贈兄秀才入軍」	해서 중자
51·52	唐 朱景玄, 오언절구「中峯亭」	행서 소자
	唐 許渾, 오언절구「長安早春懷江南」	행서 소자
	唐 姚合, 오언절구「秋中夜坐」	행서 소자
	唐 崔櫓, 오언절구「述懷」	해서 소자
	唐 朱景玄, 오언절구「四望亭」	해서 소자
53	唐 李白, 칠언절구「送賀賓客歸越」	행서 세필
	唐 王維, 칠언절구「與盧員外象過崔處士興宗林亭」	행서 세필
	唐 岑參, 칠언절구「山房春事」	행서 세필
54	唐 張旭, 칠언절구「桃花谿」	초서 세필
	唐 王維, 칠언절구「戲題盤石」	초서 세필
	唐 張謂, 칠언절구「早梅」	초서 세필
	唐 竇鞏, 칠언절구「新營別墅寄家兄」	초서 세필
55·56	“驚沙坐飛”	초서 대자
57·58	“滅跡隱端”	행서 대자
59·60	“天籟淸發 鶴唳橫空 山雲怗閣 千峯送雨”	전서(과두전)
61·62	“大膽落筆”	해서 대자
63-66	“安其素履 與物同春”	전서 대자
67-72	唐 錢起, 칠언절구「與趙莒茶宴」	초서 중자
73·74	조윤형 발문	전서 소자

전서의 일종인 조충전(雕蟲篆)의 형태를 묘사한 “낙화산만(落花散漫)”이란 어구를 대자 초서로 쓴 글씨가 『송하첩』의 첫 면을 이룬다.[11] 스승 이광사의 영향을 보여주는 서풍이 대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조윤형 특유의 분방한 행초 서풍이 눈에 띈다.

5. 글씨의 특징

강세황은 조윤형에 대해 평가하면서 옛날부터 명필들 중 각체를 모두 잘 쓴 자가 없었는데, 조윤형은 고전(古篆),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의 오체 모두 최고의 경지여서 고인 중에 앞선 사람이 없다며 높이 평가하였다.[12] 조윤형의 『송하진적(松下眞迹)』을 소장한 이정직(李定稷, 1840-1910)은 서첩의

11) “落花散漫”은 宋 釋 夢英이 편찬한 서법이론서 『十八體書』에 나오는 구절로, 雕蟲篆을 제비가 유유자적하게 날고 떨어지는 꽃잎이 흩날리는 모양에 비유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雕蟲篆者 魯秋胡妻之所作 秋胡隨牒遠仕 荏苒三季 鳴垤有懷 春居多思 桑時閑翫 集爲此書 亦云戰筆書 其體遒健 垂畫纖長 旋繞屈曲 有若蟲形 其爲狀則玄鳥優遊 落花散漫矣.”

12) 姜世晃, 『豹菴遺稿』 권5, 「題曺時中允亨各體書後」.

발문에서 조윤형의 전서는 당(唐) 이양빙(李陽氷), 예서는 〈조전비(曹全碑)〉의 필의를 따랐고, 대자(大字) 해서는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 소해(小楷)는 진의 서법을 따라 왕희지(王羲之) 서풍을 기반으로 한 조선 후기의 육조풍(六朝風) 해서를 썼으며, 행서와 초서는 윤순(尹淳)과 이광사를 따랐다고 하였다.[13]



〈그림 2〉 조윤형 전서, 『松下帖』 43·44면



〈그림 3〉 李陽氷, 〈李氏三墳記〉, 탑본

『송하첩』 43·44면의 조윤형의 전서 필적(그림 2)을 보면 세장(細長)하고 유연한 원필(圓筆)을 특징으로 하는 당 이양빙의 전서 〈이씨삼분기(李氏三墳記)〉(그림 3)와 매우 유사하다.[14] 또한 『송하첩』 39·40면의 예서 필적(그림 4)은 편평한 자형과 늘씬한 파책을 특징으로 하는 후한시대 〈조전비(曹全碑)〉(그림 5)의 서풍을 수용한 흔적이 드러나 모두 이정직의 평가를 잘 대변해준다.[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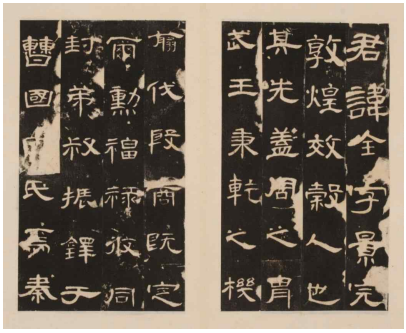
13) 국립전주박물관 편,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석정 이정직』, 국립전주박물관, 2019, 52면 『松下眞迹』; 정해득, 「松下 曺允亨의 書藝論과 書役」,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138면 주40에서 재인용.

14) 〈李氏三墳記〉는 이양빙의 친척이었던 삼형제의 묘비를 쓴 것으로 당 767년에 세워진 비석이다. 古碑와 후한대에 편찬된 『說文解字』에서 자형을 취해 전서 본래의 근엄한 서풍을 띠면서도 이양빙 특유의 유연한 원필을 특징으로 한다.

15) 〈曹全碑〉는 후한(185년) 때 새겨진 비석으로, 무장으로 유능했던 曹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비이다. 편평한 자형과 늘씬한 파책을 특징으로 하는 예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석비이다.



〈그림 4〉 조윤형 예서, 『松下帖』 39·4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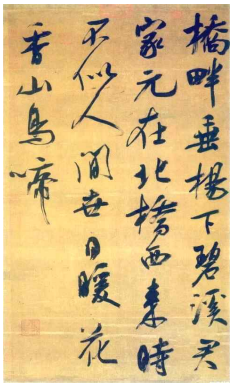


〈그림 5〉 〈曹全碑〉, 185년, 탑본

조윤형은 일찍이 이광사에게 글씨를 배워 그의 글씨에는 왕희지 행서를 바탕으로 미불(米芾) 서풍이 배어있다. 조윤형의 사위 신위(申緯)는 조윤형이 북경 자금성 동쪽 조양문(朝陽門)에 쓴 편액 글씨에 대해 "미불을 배우는 묘리는 전도(顚倒)되는 기상을 배우는데 있다."고 하면서 조윤형의 글씨를 미불과 왕희지를 각각 추종한 오거(吳琚)와 설소팽(薛紹彭)에 비견한 바 있다.[16] 조윤형의 글씨가 어디에 바탕을 두었는지를 가리키는 대목이다.



〈그림 6〉 조윤형 행서, 『松下帖』 25·2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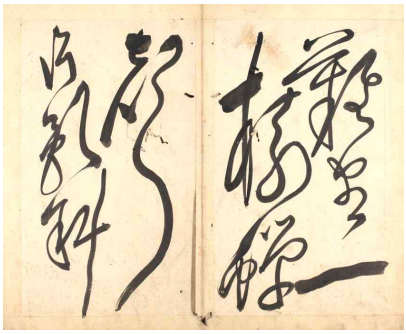


〈그림 7〉 吳琚, 〈蔡襄 訪陳處士〉, 비단에 먹, 台北故宮博物院

16) 申緯, 『警修堂全藁』 6책, 「松下翁朝陽門牓書」. "學米妙在學顚氣 不然俗書無差別 人品第一書第二 方吳不足有餘辭."

『송하첩』 25·26면에 실린 행서 필적(그림 6)에서 미불을 수용한 흔적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글자의 중심이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있다. 또한 파임(㇏) 획을 비교적 짧게 처리하는 반면 갈고리(亅) 획의 끝부분을 무겁게 눌러 올리는 등 미불 행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를 미불을 추종한 남송의 오거(吳琚)의 행서(그림 7)와 비교해보면 신위의 견해와 일치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71·72면의 초서(그림 8)에는 조윤형이 만년에 구사했던 광초(狂草)에 가까운 분방한 운필이 잘 나타나있고, 59·60면의 올챙이 모양의 과두전(蝌蚪篆)으로 쓴 전서(그림 9)에서는 고전(古篆)을 다양하게 구사했던 조윤형의 서예 역량을 읽을 수 있다.



〈그림 8〉 조윤형 초서, 『松下帖』 71·72면



〈그림 9〉 조윤형 전서, 『松下帖』 59·60면

6. 서지적 가치

조윤형의 필적으로는 현재까지 구 이겸노 소장의 8폭 병풍, 건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서첩 및 개인 소장의 서첩 등이 학계에 소개되어 왔다. 조윤형이 1793년(정조 17)에 안 상사(安上舍)를 위해 작성했다는 발문이 있는 건국대박물관 소장 서첩(『朝鮮後期書藝展』, 예술의전당, 1990, 34쪽)이 『송하첩』과 가장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송하첩』

은 74면이라는 방대한 지면에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각체가 두루 구사되어 있으며, 각 글씨 또한 다양한 서풍을 선보이고 있어 조윤형의 서풍 연구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7. 내용적 가치

신대우(申大羽)는 조윤형의 글씨에 대해서 "글씨의 변화와 움직임이 물 흐르는 듯 빨라 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만년에는 더욱 방종하여 기울어지거나 갑자기 꺾어지고 오르락내리락하며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으로 마치 법도대로 내달려서는 안 될 듯이 하여 창의와 지혜로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하였다.[17] 이는 조윤형이 스승 이광사를 포함한 전대 명인의 글씨를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점차 창신(創新)을 염두에 둔 분방한 운필을 추구해나갔음을 형용한 것으로, 이 서첩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특히 초서에서 동시기 다른 서가의 글씨에 비해 즉흥적인 필치와 자유분방한 운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첩은 무엇보다 전서에서 당 이양빙, 예서에서 후한시대의 〈조전비〉, 해서에서 당 안진경의 수용을 보여주는 한편, 스승 이광사의 영향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에서 벗어난 서풍이 하나의 서첩에 혼재되어 있어 조윤형을 포함한 조선 후기 서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17) 申大羽, 「朝鮮故知敦寧府事曺公墓碑」, 『宛丘遺集』 권7. "其書變動瀏漓 不爲泫縛 晩年益放縱 其欹傾頓挫低仰怒張之態 若不可範以馳驟 而刱意騁智 勒成一家."

▮ 참고문헌

姜世晃, 『豹菴遺稿』
申大羽, 『宛丘遺集』
申緯, 『警修堂全藁』
柳得恭, 『古芸堂筆記』
李德懋, 『靑莊館全書』

김지나, 「朝鮮後期 松下 曺允亨의 書藝 硏究」, 대전대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정해득, 「松下 曺允亨의 書藝論과 書役」,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석정 이정직』, 국립전주박물관, 2019.
『朝鮮後期書藝展』, 예술의전당, 1990.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main.do)
『日省錄』(https://kyudb.snu.ac.kr/)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